



2025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

VENUS PROJECT

2026.1.5 MON - 2.5 THU
영월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시를 그리는 AI 화가

비너스
프로젝트

시와 그림의 융합
AI 프로젝트

디지털 아트



비너스시_바다의 노래(002)

<Venus Project>는 생생형 AI 딥러닝을 통해 시와 회화가 크로스오버하는 또 다른 예술 장르를 개척하는 시도이다. 이 작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 프로젝트 명칭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선구자인 민족시인 이상화와 요절한 천재화가 이인성을 새벽에 가장 먼저 뜨는 가장 밝은 별, 금성(Venus)에 비유한 데서 나왔다. 1937년, 대구 최초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근대 백화점 무명당은 지역 사회에 신지식을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었다. 엄혹한 일제 강점기, 무명당의 한 공간에서 시인 이상화(1901~1943)와 화가 이인성(1912~1950)은 진부함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을 지닌 *영과회(零科會)는 1927년에 결성된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 단체이자 동요부와 시가부가 공존하는 종합예술단체(프롤레타리아/아카데미즘 경향 공존)로 일제 탄압에 의해 1929년 제3회 영과회 전시를 마지막으로 해산된다. 무명당에서 영과회는 문학과 예술이 교류하는 장으로 모임의 색채가 달라졌다. 이는 이상화와 이인성이 당대에 밀접하게 교류했다는 방증이다. *이인성이 연배가 위인 이상화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면?이란 가설에서 <Venus Project>가 출발했다.

기획자 박소영, (주)PK Art&Media 대표
큐레이터 김호진
전시제작 임대호, 석정민, 김차오름

Venus Project



비너스 AI로 재탄생된 들에도 봄은 오는가_002

이상화의 시 60여편을 분석한 자료를 검토해서 시각적 이미지 생성에 가장 적합한 시 세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가을의 풍경>, <바다의 노래>를 선정했다. 대략 6개월 정도의 시딤러닝 과정을 거쳐 각 시에 내포된 주제, 감정, 상징, 시어(詩語), 낱양소를 분석해서 시각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 결과를 다시 이인성의 화풍을 학습한 AI모델과 결합했다. 이인성의 대표 작품 특유의 색채감각, 화면구도, 붓터치 등의 학습과정을 통해 생성된 수천 장의 이미지 중 이인성의 화풍과 비슷하게 구현된 이미지들을 선별해 순차적/반복적으로 다시 학습해 나가는 시딤러닝 과정에서 이상화의 시상(詩想)이 그림에 반영되는 지도 검토했다. 이렇게 해서 총 8,000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그 중 800여 장의 작품이 추가학습에 활용돼 최종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결과물은 NFT와, 종이나 캔버스에 출력된 디지털회화, 또는 디지털 액자(태블릿PC)에 든 '메타페인팅 Meta Painting'(‘숫영상’화된 회화 이미지)으로 전시되며 판매도 가능하다.

<Venus Project>는 시가 예술작품 창작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시와 회화라는 두 장르 예술의 협업으로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는 결과물이다. AI에 의해 시인의 언어와 화가의 붓질이 크로스오버된 작품들을 통해 또 하나의 기술/예술 융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영월문화예술회관 전시는 이상화의 시 세 편이 이인성의 화풍으로 해석된 시그림들과, 두 버전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결합과정 a:발표된 이상화의 모든 시를 학습한 시가 선정된 세 편의 시를 입력하면 중요 프롬프트를 추출 b: 이인성의 시그니처 작품 7점을 기반으로 학습된 화풍 모방. 이 둘을 합친 것을 '비너스 AI'로 명명, 그리고 관람자의 참여로 작품이 오나서되는 인터랙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총괄진행은 (주)PK Art&Media가 담당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생성형 AI 모델 개발은 AICU(AI 전문가, 경북대 의대 뇌과학센터 정성문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가 담당했다.

1) '영과회'는 1927년에 결성된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 단체이자 동요부와 시가부가 공존하는 종합예술단체 (프롤레타리아아카데미즘 경향 공존)로 일제 탄압에 의해 1929년 제3회 영과회 전시를 마지막으로 해산된다. 무명당에서 영과회는 문학과 예술이 교류하는 장으로 모임의 색채가 달라졌다.

2) 버전 a: 발표된 이상화의 모든 시를 학습한 시가 선정된 세 편의 시를 입력하면 중요 프롬프트를 추출
버전 b: 이인성의 시그니처 작품 7점을 기반으로 학습된 화풍 모방. 이 둘을 합친 것을 '비너스 AI'로 명명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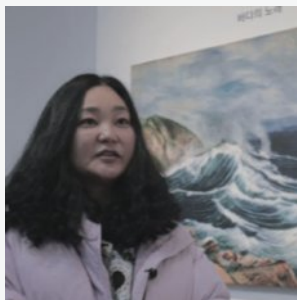


예술의 확장, 새로운 예술을 향한 첫 걸음

기획자 박소영

<Venus Project> 전시는 이상화의 시와 이인성의 화풍을 통해서 ai가 시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프로젝트입니다. ai라는 특별한 21세기의 예술과 과학이 융합한 화가가 이상화의 시를 이인성의 화풍으로 만든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시 세 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바다의 노래', '가을의 풍경' 이 세 점을 선택했지요. 이인성의 그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작품들을 ai를 통해 디러닝을 시켰습니다.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사고, 지식,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ai는 가장 유능한 어시스턴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TERVIEW



시와의 대화 생각을 깊게 만드는 도구

영월화가 김현진

“사실은 조금 반감이 있었어요.” 시가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화가에게 가볍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전시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은 뒤 생각이 달라졌어요. 협력자라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나 도구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걸 내가 배워야겠구나’ 싶었죠. 자료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를 혹시 누가 비슷한 그림을 그렸을까?” 뭐 이런거, 그런것도 물어볼 수 있고, 최근에 제가 ai에게 “내가 만든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 어때?”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좋다고 하면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좀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질문을 잘 던진다면, 평소에 쉽게 만나기 어려운 박사한 분들의 조언을 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선 저한테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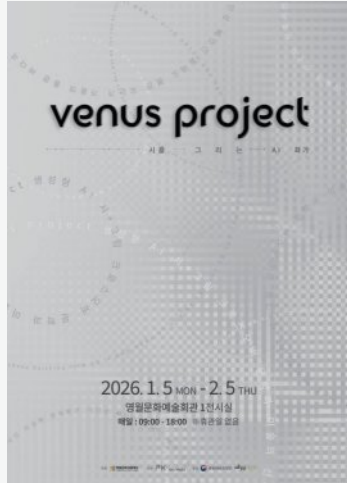
비너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일은 하나의 전시를 감상하는 행 위라기보다,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예술의 정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경험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창작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직해 왔다. 감정, 기억, 상상력이라는 단어 들은 언제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해 왔다. 그러나 이 전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는다. 감성은 과연 인간만의 언어인가. “AI가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기술적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다. 이해란 무엇인가, 느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비너스 프로젝트는 바로 그 질문 위에서 태어난 서사다.

비너스 시의 탄생은 흥미로운 상징성을 지닌다. 한국 근대 예술의 중요한 결을 이루는 시인 이상화와 화가 이인성. 한 사람은 언어로 시대를 건디고, 한 사람은 색채로 시대를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감각의 영역에서 세계를 해석했던 두 예술가의 흔적이 이제 데이터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다. 이상화의 시어 속에 응축된 정서, 이인성의 화면 위에 쌓인 색채의 리듬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창작 주체에게 익숙된 감각의 토양이 된다. 이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시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있다. 비너스 시는 시를 분석하고, 언어의 결을 시각적 문법으로 번역한다. 문장은 색채가 되고, 정서는 빛의 밀도가 되며, 침묵은 여백으로 남는다. 인간에게 시가 내면의 풍경이라면, AI에게 시는 구조와 패턴, 그리고 감정의 확률로 존재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물은 차갑지 않다. 계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들은 이상하게도 감정의 온도를 품고 있다.

메인 전시존에 들어서서 순간 관람객은 묘한 감각의 균열을 경험한다. 어디선가 본 듯한 색채의 호흡, 익숙한 듯 낯선 구도, 인간의 회화를 연상시키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모방인가, 해석인가, 아니면 새로운 창작인가. 이 질문은 쉽게 답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관람객의 감각을 흔들며 머무른다.

비너스 프로젝트는 스타일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예술적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한다. 인간 예술가가 경험과 감정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했다면, 시는 데이터와 관계성을 통해 감각을 조직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묘하게 닮아 있다. 결국 창작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질서로 배열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사운드스케이프가 흐르는 공간에서 이 경험은 더욱 깊어진다. 이상화의 시가 소리로 확장될 때, 이미지는 더 이상 눈으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색채는 울림이 되고, 화면은 호흡이 된다. 시는 읽히지 않고 공간을 떠돌며 감각으로 침투한다. 기술은 이 순간 배경이 아니라 분위기가 되고,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의 환경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생성형 AI 체험존. 이 공간은 전시의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장치이자, 가장 의미심장한 전환점이다.



비너스 프로젝트 포스터

관람객은 더 이상 감상자로 머물지 않는다. 몇 개의 단어, 몇 줄의 문장, 짧은 프롬프트가 입력되는 순간 화면 위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한다. 평균 10~15초. 창작이 오랜 시간의 축적이라는 믿음 이 순식간에 재해석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경험이 말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다. 창작은 이제 특정한 능력이나 재능의 영역에서 선택과 해석, 조합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관람객은 작품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예술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 없이 갱신되는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비너스 프로젝트는 어떤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감각의 질문들을 남긴다. 시가 감성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인간이 감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예술의 본질은 창작 주체에 있는가, 아니면 경험되는 감각에 있는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는 어디에서 의미를 갖는가.

비너스. 이 이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전시의 태도를 정확히 드러낸다. 이것은 기술을 과시하는 전시가 아니다. 또한 인간 예술을 대체하려는 선언도 아니다. 오히려 예술이라는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에 가깝다. 결국 비너스 프로젝트는 하나의 풍경을 보여준다. 인간의 감정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마주하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낯선 아름다움의 풍경. 그 앞에서 잠시 멈춘다. 그리고 예술은 언제나 경계에서 시작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새로운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예술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 비너스 프로젝트는 바로 그 흔들림의 현재형이다. 낯설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의 확장이 되는 순간,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이 전시는 시에 대한 이야기라 아니라,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인간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기록집

47
이것은 숫자가 아닌,
"한 해 동안 지역을 물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영월에는 47개의 예술이 피었다.

[전문 예술]

예술을 만드는 사람

예술인의 창·제작여건 개선과 발표활동 및 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



2025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시각예술



예술인 김금래

2009년부터 한국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월 출신 작가

사업명 협력과 상생
<소나무와 꽃의 콜라보전>



예술인 고주서

1991년 데뷔. 영월 출생 사진작가 한반도지형 기록-전시를 통해 지역 자연보전 가치를 확산 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사업명 고주서 사진전 「신비의 요선암」



예술인 양태수

1999년 데뷔. 영월로 귀촌해 목판화 창작과 전시 활동을 이어가는 지역 미술 원로 작가

사업명 양태수 판화와 콜라주의 만남전



예술인 석상욱

2021년 데뷔. 영월에서 가족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사진 작업과 '유기농 밴드' 활동을 이어가는 사진예술가

사업명 영월, 자연이 빛은 미세한 풍경

시각예술



예술인 고명진

1973년 데뷔. 2012년 영월로 귀촌 후 미디어
기자박물관을 운영하며 지역 미디어문화와 교
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문예술가

사업명 협력과 상생
<소나무와 꽃의 콜라보전>



예술인 정연호

2015년 데뷔. 2007년 영월로 귀촌 후 민화 공
모전 수상을 계기로 활동을 이어가는 전통민화
작가

사업명 달달 영월, 꿈꾸는 우리 민화



예술단체 영월미술협회

2017년 설립, 정기 회원전·기획전을 통해 지역
미술 발전과 작가 역량 강화를 지속해온 영월
대표 미술단체

대표자 김병철

사업명 2025 영월미술협회전

공연예술



예술인 이승은

1994년 데뷔, 피아노 전공을 바탕으로 합창단 반주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며 영월에서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피아니스트

사업명 해설이 있는 음악회
<hello germany?>



예술인 엄현정

2019년 데뷔, 전통음악 전공을 바탕으로 예술 강사 및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음악적 실험을 이어가는 대금 연주자

사업명 바람으로 잇다



예술단체 극단 시와별

2021년 창단, 영월로 귀촌한 전문예술인들이 연극·뮤지컬 창작·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극단

대표자 상지운

사업명 기억을 반납하시겠습니까?



예술단체 영월빅밴드

2006년 창단. 전문 예술 법인으로 지정되어 150여 회 공연을 진행하며 영월의 음악문화 기반을 확장해온 단체

대표자 김창갑

사업명 군민화합 한마당 가을음악회

문학



예술단체 달빛문학회

2017년 설립. 문학 기반의 출판·전시와 교류 활동을 통해 영월의 인문·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문학단체

대표자 이옥순

사업명 달빛문학회 제9집 출판 및 제3회 영월로어린이 동시백일장 공모전 작가와의 만남 및 시화전



예술단체 영월동강문학회

2000년 설립. 영월을 대표하며 지역 문학 창작과 활동을 이끄는 전문 문학인 단체

대표자 서철수

사업명 2025년 『동강에 뜨는 별』 제24호 발간 및 제18회문학기행

청년 예술인



장 르 공연예술

예술인 강희은

2012년 데뷔. 영월에서 국악 연주·교육·공간 운영까지 병행하며 지역 전통음악 확산에 기여하는 가야금 연주자

사업명 강희은 가야금 연주회 '가야금, 타다'



장 르 시각예술

예술인 김고은

지역의 일상과 사라지는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며 예술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만들어가는 영월 청년 작가

사업명 사라짐과 기억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퓨전국악앙상블 류

2025년 설립. 영월 기반으로 전통·클래식·실용음악을 융합한 창의적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예술교육과 공연을 확장하는 앙상블

대표자 엄찬미

사업명 2025 퓨전앙상블 류 창단연주회 '흐름의 서막' Opening of the Flow



장 르 공연예술

예술인 김련경

2021년 데뷔, 2025년 영월 귀촌 후 연극 창작·교육·국제공연 등 다층적 활동을 이어가는 극단 시와별 배우

사업명 꿈을 향한 노래

장애예술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월군지부

지적장애인의 자립·권익옹호와 교육·복지 지원
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
상에 힘쓰는 단체

대 표 자 권석주

사 업 명 발달장애인의 가야금이 들려주는
여울소리

[지역 생활 예술]

일상에 예술을 심는 사람

생활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각심회

서각에 관심 있는 군민 60명이 참여하여 정기 교육과 회원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통 서각의 가치를 확산하는 서각 동아리.

대 표 자 윤상옥

사 업 명 서각과 그림, 공예의 만남전
(윤무원·조복한2인전)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스톤아트 영월

영월 어르신 14명으로 구성되어 자연 소재를 활용한 스톤아트 작업과 전시를 통해 새로운 문화 감수성을 확장하는 창작 모임

대 표 자 김흥식

사 업 명 스톤아트, 영월을 물들이다



장 르 문학

예술단체 글벗문학회

성인 11명으로 구성되어 시 창작과 글쓰기 학습, 문집 발간 등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문화 활동을 이끄는 문학 모임

대 표 자 피미경

사 업 명 문예창작집 발간 및
시낭송, 출판기념회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여백회

영월군민 13명으로 구성되어 사제동행전과 공동전시회를 통해 지역의 예술 교류와 문예 활성화에 기여하는 미술 동아리

대 표 자 정은영

사 업 명 영오삼 여백회 사제동행전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한울오카리나

청소년·직장인·주부 16명으로 구성되어 정기 공연과 재능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선율을 전하는 오카리나 동아리

대 표 자 안월자

사 업 명 청정 영월 작은 음악회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대일밴드

직장인과 지역주민 10명으로 이루어져 라면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공동체 음악문화를 만들어가는 밴드

대 표 자 정남옥

사 업 명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제11회 라면콘서트



장 르 문학

예술단체 (사)한국문인협회 영월지부

35명의 지역 문인으로 구성되어 창작발표회, 문학교류, 『영월문학』 발간 등을 통해 지역 문학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문학 단체

대 표 자 서철수

사 업 명 아름다운 영월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영월문학』2025제21호발간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한국서각협회 강원지회 영월지부

일반주민 14명으로 구성되어 서각 예술 보급과 작품 전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기반을 넓혀가는 서각 단체

대 표 자 엄재석

사 업 명 한국서각협회 강원지회 영월지부전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나비효과

직장인과 주민 10명으로 구성되어 기타 연주와 버스킹 활동으로 지역 문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타 동아리

대표자 이재웅

사업명 낭만 버스킹 IN 문화도시 영월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도깨비소리 연구회

군민 13명으로 이루어져 강원 아라리와 민요 중심의 전통 음악을 계승하는 생활민요 동아리

대표자 안영자

사업명 봄날이 온다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영월서간문화공작소

공예인 5명으로 구성되어 공예문화 활동과 재능 나눔 전시를 통해 지역 공예 생태를 풍요롭게 하는 공예 동아리

대표자 김영자

사업명 제4회 정기전시회 영월, 어울어지다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살롱더스트링

청소년·직장인 10명으로 구성되어 현악 합주와 공연을 통해 생활음악 교류를 활성화하는 현악 앙상블

대표자 변선희

사업명 Salon Harmonia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동네방네기자단

영월군민 14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소식과 문화를 취재·보도하며 공동체 소통을 확장하는 주민기자단

대표자 김영숙

사업명 아름다운 영월이야기 2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기타와소나무

일반인·직장인 10명으로 구성되어 기타 연주와 친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음악으로 연결되는 기타 모임

대표자 안영차

사업명 통기타와 함께하는 음악산책



장 르 문학

예술단체 나들목 문예창작

문학을 사랑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시 창작 교육과 동인지 발간을 통해 지역 문학의 깊이를 키우는 창작 모임

대표자 조후연

사업명 동인 문집 제4호 출판



장 르 시각예술

예술단체 리플레이스 사회적 협동조합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한지공예·설치미술 창작 및 축제 준비 등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을 확장하는 예술 협동조합

대표자 윤보용

사업명 제2회 지멋대로 한지공예 작가그룹 전시회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술을 배달하는 사람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격차 해소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영월빅밴드

대표자 김창갑

사업명 찾아가는빅밴드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빅밴드 특유의 풍성한 사운드로 친숙한 대중가요와 추억의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음악을 통한 정서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전한다.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참사랑예술 봉사단

대표자 고옥순

사업명 참사랑 나눔 한마당

요양원과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다원예술 공연으로 의료음과 우울감을 덜고, 어울림의 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과 공동체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어린 소리예술단

대표자 심예분

사업명 추석맞이 경로 위안 공연

전통민요와 가아금, 장구·북 연주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효'의 이야기를 나누는 참여형 전통예술 공연이다.



장 르 공연예술

예술단체 클래식앙상블더문

대표자 홍미연

사업명 찾았다!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모차르트 등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며, 함께 연주하는 체험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다.

2000년대 초,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된 작지만 깊은 음악 이야기

우리는 영월 빅밴드입니다.
20년 전,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은 밴드.
지금은 지역 주민이 '우리 밴드'라 부르는 영월의 대표 예술단체가 되었습니다.

설립시기 2006년경

구 성 지역 연주자, 직장인, 예술가 등으로 구성

음악장르 재즈, 클래식, 대중가요 등

주요활동 정기연주회, 지역축제 등 초청공연 등

영월에 심어 음악으로 심어가는 사람들

영월 빅밴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영월에서 재즈를 한다는 것”



문화, 에원_확장하다

2025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 영월

강원문화재단*영월문화관광재단

별의 학교
: 천문과 예술이 만나다

영월형 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체

영월문화예술교육
기초자원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사업 내용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내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 기초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명

별의학교 : 천문과 예술이 만나다

사업 일정

2025년 3월 ~ 12월

추진 배경

영월군은 풍부한 역사·자연 자원을 갖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부족해 체계적 연구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조사·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마련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목적

영월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최



주관



운영



추진 방향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창의성 표현력 개발, 공동체 문화역량 강화 등 지역 문화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장기적 정책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함.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창의성과 표현력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예술 경험을 통한 창의적 사고 및 표현력 증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운영자 강사 대상 워크숍, 특강, 답사 등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자부담 매칭 등 자립 운영 방안과 협력 기반 구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및 교류 강화

세대간 교류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 결속력 강화

전문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자문과 협의체 구성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네트워크 조성

중 점 추 진 방 향





협약개요

협약주체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교육지원청,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영월군가족센터, 별마로천문대, 영월 교사대표
협약목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체 중심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요협약내용	<p>협력 네트워크 구축 영월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력</p> <p>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개발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상호 지원</p> <p>성과 공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협의체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p>

사업명 별의 학교: 천문과 예술이 만나다

일시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15:00~19:00

장소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참여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족 (총 33명)

영월형 문화예술교육
시범프로그램

추진계획(안)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25.09.15. ~ 25.10.02.(목)
모집대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5인 이내, 선착순 8가족)
프로그램	우주여권, 나만의 별자리, 드로잉, 별자리판 보드게임, 야광 플래시몹 체험, 별자리 관측 및 사진촬영 등
신청방법	메일접수(karino@ywcf.or.kr), 전화접수, 방문접수
문의전화	영월문화관광재단 033-375-6385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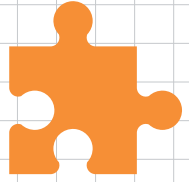
운영

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실무협의회

영월문화예술교육 기초자원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명	영월문화예술교육 기초자원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5년 8월 ~ 11월 (4개월)
세부내용	<p>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발전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군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군 문화정책 기초 - 관련 조례 및 지원체계 현황 · 영월군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현황 분석 · 영월군 문화예술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목록화 및 분류 기준 - DB 구축 프로세스 및 활용 계획 · 영월군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지원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협력 현황 - 교육기관-단체 협의체 기반 점검 - 제도적·행정적 지원의 수준 · 영월군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 현장 중심 문제점 및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인프라적 미비점 - 전문 인력 및 콘텐츠 부족 문제 <p>영월군 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 이용자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참여 단체, 기관, 교육시설, 참여자 등 · 조사 실시 직전년도 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통계서비스 개선 도모 - 조사 대상 : 문화예술교육사업 설문 응답 기관 및 유관기관, 참여자 등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 11월 (5개월) - 조사 내용 : 본 조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활용, 기타 의견 수렴 - 결과 분석 : 설문 문항별 응답 값에 대한 집계표 작성, 이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이론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교육의 세 축(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 자체의 교육, 사회 변화를 위한 교육)이 영월의 지역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영월의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지역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교육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이 큼.

지역 환경의 이중적 구조

영월은 장릉·김삿갓·동강 등 풍부한 문화·자연 자원을 보유한 반면, 인구 감소와 세대 단절, 교육 접근성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인구학적 취약성을 도시에 안고 있음. 이와 같은 이중 구조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창의성 함양'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을 제기함.

최신 트렌드와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 전환,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국가 정책 트렌드가 영월의 지역 여건과 결합할 때,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컬 아카이브형 예술교육, 세대통합·돌봄형 프로그램, ESG 기반 국제 교류형 생태계는 영월의 미래 전략으로 실질적 타당성을 갖음.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

영월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공동체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국가적 정책 방향(디지털·포용·지속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포용하는 복합적 교육 생태계 모델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넘어, 영월군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이자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예술교육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컨설팅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

“영월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

- 일 정 : 2025년 6월 27일(금) 13:00

- 장 소 : 영월문화예술회관

- 컨설턴트

· 공연기획 : 소홍삼((재)의정부문화재단 공연예술부장)

· 문화회관 운영 : 김이석((전)당진문예의전당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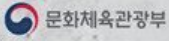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 윤현옥(문화공작소 아하 대표)

· 전시기획 : 이미란(강동문화재단 공연전시팀)

영월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열어주고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무대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 예술의 든든한 거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 소중한 공간 역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연장 시설, 낮은 공간 활용도, 전문 인력의 부재, 그리고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과제까지 이제 문화회관은 물리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 진단과 전략적 제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5 종합컨설팅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은 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과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시설 혁신의 컨설팅 플랫폼입니다. 이번 영월문화예술회관의 컨설팅을 통해 단순히 공연장을 개보수하는 것을 넘어 공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지역과 예술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정립해 나갑니다. 하나의 회관이 바뀌면 한 지역의 문화가 깨어납니다. 그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카카(KoCACA)는 전국 문화회관 경쟁력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정보 인프라 기반 마련을 통한 공연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문화회관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회관의 개보수를 통한 공연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및 극장기술정보 표준양식을 기준으로 구축한 극장기술정보의 공유 및 문화정보 인프라 기반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의 유형은 컨설팅 3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건립), 극장기술정보구축 1개 총 4개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무이하게 영월문화회관재단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선정되어 문화회관 운영, 공연기획, 전시기획, 문화예술교육 분야 등 문화회관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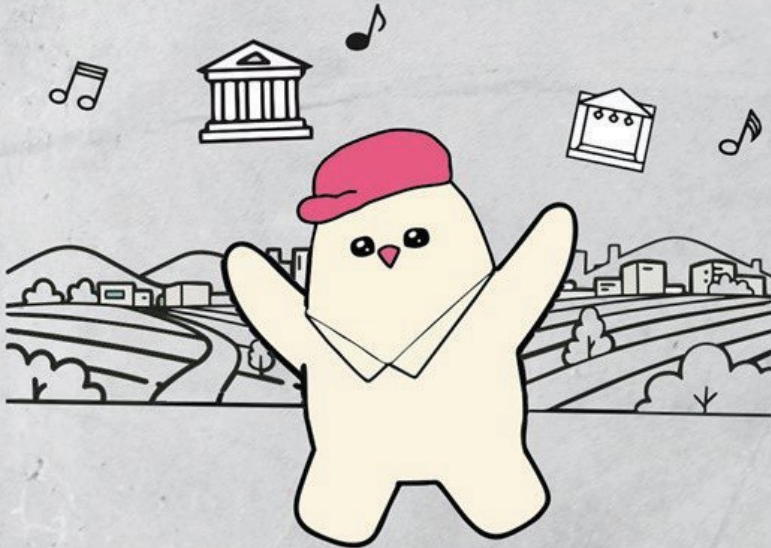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달라지는 정책 ①

문화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년, 달라지는 문화·여행·예술 정책!

2026 달라지는 정책 1 문화 소외계층 지원 확대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 2026년에 달라지는 통합문화이용권

- ① 소외계층 270만 명 대상 연간 15만 원 지급
· 소외계층 264만 명→270만 명 / 14만 원→15만 원
- ② 청소년·생애전환기 1만 원 추가 지원
· 청소년: 13~18세 / 생애전환기: 60~64세

■ 2026년 달라지는 지역 순회 공연/박물관

- ① 인기공연 지역 순회 대폭 확대
·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국립·민간단체 인기 공연
- ②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순회 확대
· 11개관 관당 1회 이상→70개관 관당 2회 이상

2026 달라지는 정책 2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2026년 달라지는 지역여행 활성화 정책

- ① 농어촌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 실시
· 농어촌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
(인구감소지역 84개 중 20개 공모 / 개인 10만 원, 단체 20만 원 한도)
- ② 연박 숙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 신설
· 연박 숙박할인권 최대 7만 원, 섬 숙박할인권 최대 5만 원
- ③ 주제별 명소 발견 프로젝트 신설
· 국내외 여행객 흥미 유도 테마 구성 및 테마별 핫스팟 제공

2026 달라지는 정책 3

청년 예술인의 창작과 참여 촉진

청년예술인의 창작과 현장경험 지원!

■ 2026년 달라지는 청년 예술인지원

- ①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시행
· 청년 창작자 3000명, 연 900만 원 지원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청년 창작자)
- ②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 확대
19세(16만 명) / 10~15만 원 / 2개 예매처
→19~20세(28만 명) / 15~20만 원 / 7개 예매처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
※ 주민센터·온라인 발급기간 동일(2026년 11월 30일(월) 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만 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
※ 추가지원 대상 :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생, 준고령기 1962년생~1966년생
※ 추가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ARS☎1544-3412 재충전 가능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문화누리



※ 국내 거래 업종과 품목만 허용

문화분야 가맹점 등록분야

분류(장르)	소분류	입종 및 품목
도서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잡지 * 북한사업자(하루, 비하일 등) 신규 가맹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미술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집), 표구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문화체험	지역축제, 문화체험(공연,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도서관 프로그램 등), 온라인허미큘러스, 한복대여, 드론체험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PG사)

관광분야 가맹점 등록분야

분류(장르)	소분류	입종 및 품목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지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물,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숙박	체험관광	텐트스테이, 레일바이크, 집라인, 모노레일,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민속촌, 실내형 테마파크(키즈카페, VR체험, 방탈출, 직업체험, 실내 액티비티)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분야 가맹점 등록분야

분류(장르)	소분류	입종 및 품목
스포츠관광	스포츠관광	프로스포츠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구자전거, 운동기구, 낚시용품
체육시설	체육시설	● ●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플러스스케이팅, 승마, 스케이팅,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요트, 패러글라이딩, 낚시(터), 바둑(기원) ● ● ● 체육시설이용 예약 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 ● 체육시설 대관, ● ● ● 체육시설 물품보관

※ 모든 업종에서 해당 및 신발류 일일 비허용. 특히, 낚시(터) 및 바둑(기원)에서 식음료 비허용
 ※ 특수 분야 운영 가맹점일 경우(예: 문화체험+공예품 등) 취급 비종이 높은 분야를 택할바어 신청

영월 2026 축제

YEONGWOL FESTIVALS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축제!

제59회

단종묘호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6년 4월 24일(금) - 26일(일)

조선 제6대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위무하는 영월 대표 역사 문화 축제로, 전통 공연·의례·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단종의 삶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축제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진의 고장 영월에서 펼쳐지는

제24회

DONG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동강국제사진제



2026년 7월 ~ 10월

한국 최초의 사진 문화 고장 영월에서 열리는 국제 사진 축제로, 자연·사람·삶을 주제로 한 국내외 사진 작품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이 펼쳐 집니다.



영월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뱃목의 즐거움까지!

제28회

동강뱃목축제

DONGGANG RAFT FESTIVAL



2026년 7월 31일(금) - 8월 2일(일)

동강의 전통 뱃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여름 축제로, 뱃목 체험과 수상·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원한 강과 영월의 여름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금이 되고, 길이 되다

제29회

김삿갓문화제

MIN SIK GAT CULTURAL FESTIVAL



2026년 10월 16일(금) - 18일(일)

방랑 시인 김삿갓의 삶과 문화 정신을 기리는 문화예술 축제로, 문학·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풍자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입니다.



세계유산영월장릉
관풍헌
영월문화예술회관
동강둔치

문화도시영월



제59회

단조민속축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6
4.24(금)
4.26(일)



주최: 영월

주최: 영월문화재단

주최: 영월

주최: 영월문화재단

주최: 영월군

주최: 영월군

주최: 영월군

2026 문화예술회관 공연



싸운드 써커스 유상통프로젝트

2026.5.8.(금)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장르 연극(복합음악극/퍼포먼스)

비용 10,000원(인근지역 50%할인)

버려진 물건들이 리듬이 되고, 몸이 악기가 되는 3인의 환경 퍼포먼스. 타악·움직임·서커스가 결합된 이머시브한 무대에서 관객은 놀이처럼 환경을 만난다. 웃음과 에너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공연.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극단치약무대

2026.8.5.(수)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장르 연극(연극)

비용 10,000원(인근지역 50%할인)

제8회 청소년 연극축제 대상작으로, 서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를 청소년의 솔직한 언어로 담아내며 나와 우리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청소년 성장 연극.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



슈퍼거북 슈퍼토끼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2026.12.5.(금)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장르 뮤지컬(가족뮤지컬)

비용 10,000원(인근지역 50%할인)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가 유철하의 대표작.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토끼와 거북이> 그 뒷이야기!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통해 '나답게 사는 법을 생각하게 하고, 경쟁에서 진 토끼의 뒷이야기를 통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에 대해서 들려준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사)서울시티발레단

2026.12.19.(토)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장르 무용(발레)

비용 10,000원(인근지역 50%할인)

마법으로 잠든 오로라 공주가 사랑의 힘으로 깨어나는 희망과 환상의 클래식 발레이야기.

발표일: 2024.12.19. 공연시간: 100분(인터미션 15분) 공연장: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후원: http://duhan.ulyong.gov.kr | 공연문의: 033-375-6383
 후원: 영월문화재단 | 후원: 영월문화재단 | 후원: 영월문화재단



예술인 및 예술단체 DB 등록

목적

- 지역 예술인의 현황·역량·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여 접근성과 활용도 높임
- 공공기관, 문화시설, 학교 등에서 연계 가능한 인력풀 구축

대상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신청방법

- ①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YWCF.OR.KR/](https://www.ywcf.or.kr/))
- ② 상단 → 담(문화예술)클릭
- ③ 영월 예술인/단체 클릭
- ④ ⊕ 영월예술인/단체등록 클릭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내용검토 및 승인(3~5일 소요) → 등록 및 게재

기타사항

- 문의 : (재)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부(033-375-6385)